

보도시점 2025. 9. 28.(일) 10:00 (2025. 9. 29.(월) 조간)

“이주노동을 묻고, 미래를 답하다!”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모색하는 정책 방향

- 고용노동부, 통합과 포용의 일터를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8일(일) 10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합과 포용의 일터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정책 방향”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훈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외국인노동자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이주민 지원단체 활동가, 이주노동 분야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고용노동부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이주민센터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았다.

타운홀 미팅은 외국인노동자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그간 정부가 세심히 살피지 못한 어려움이 없는지 직접 듣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경험을 직접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①이주노동자에 대한 총괄적 정책 기능 마련 문제, ②산업 재해 예방 및 발생 시 보호·지원 문제, ③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도 ▲이주노동자 양육 지원, ▲난민의 건강 및 인권, ▲영주권 신청 조건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존엄과 권리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다름은 차별이 아니라 풍요로움이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받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사회,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한분 한분이 차별 없는 대우를 받고, 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낯선 한국사회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일상을 지원하는 데에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외국인노동자 타운홀미팅 개요

붙임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한은숙 (044-202-7157)
		담당자	사무관	최주현 (044-202-7145)
			주무관	김미선 (044-202-7151)
			주무관	권지훈 (044-202-7736)



붙임 1**외국인노동자 타운홀미팅 개요**

□ 개요: 「이주노동을 묻고, 미래를 답하다!」

○ (일시) 9.28.(일), 10:00~12:00(120분)

○ (장소) 창원 컨벤션센터

○ (내용) 통합과 포용의 일터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정책 방향

○ 참석자

- 민간: 외국인노동자, 이주민지원단체 활동가,
이주노동분야 전문가 등 100명 내외

-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국제협력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

□ 세부 진행순서(안)

※ 모두 발언까지 공개

시간	내용	비고
10:00~10:15(15')	모두 발언	노동부 장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10:15~11:50(95')	자유토론 ① 외국인노동자 의견 청취 ② 이주민지원단체 활동가 등 의견 청취	참석자 전체
11:50~12:00(10')	마무리 말씀 및 기념사진 촬영	노동부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가까이서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국가의 노동자들이 **함께 숨 쉬고,**
함께 일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낮설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270만명**의 외국인이
각 지역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노동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모든 노동자는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격**입니다.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존엄과 권리가 차별받아서 안 됩니다.
다름은 차별이 아니라, **풍요로움**입니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변함없이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어떠한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모든 노동자 **한분 한분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일터 조성**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사고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어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맞춤형 안전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외국인노동자들이 낯선 한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한 **일상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작은 불편**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